

북미 NGO의 현황과 활동



장 원 / 배달환경 사무처장

56 19세기 말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환경운동은 일반 대중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자연속에서 호흡하고 그 중요성을 알자는 '자연 그대로'를 지키자는 운동이었다. 99

북미의 환경단체로 대표적인 것은 「그린피스」와 「지구의 친구들」이다. 이와같은 단체들은 왕성한 활동력과 전문성으로 국제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북미의 NGO로 얘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캐나다의 경우, 그린피스와 지구의 친구들 같은 국제조직 등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00여개의 환경단체가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일반인들의 환경의식 제고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정부 주도의 그린플랜 수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민간환경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녹색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미 환경운동의 역사는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밖에 없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환경운동단체들의 질적 양적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미국의 환경운동은 1960년대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환경운동은 일반 대중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자연속에서 호흡하고 그 중요성을 알자는 '자연 그대로'를 지키자는 운동이었다. 또한 역사적 유물이나 도시 조형의 예술적 전통미를 수호하는 운동과 미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인공건조물과 싸우는 시민운동등도 20세기 초에 조직되었으며, 그 운동의 성과로 국립공원 제도나 문화재 보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운동은 1960년대의 반전운동, 인권운동 등 정치사상적 변혁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역할을 갖추게 되었다. 1962년, 레이첼 카슨여사의 '침묵의 봄' 발간도 환경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카슨 여사의 살충제에 의한 위험성 경고는 환경오염에 관해 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호소한 최초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며, 공기와 물오염 등에 대해 시민들이 새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베리 코모너, 폴 에릭 등 환경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해 환경오염을 책임지지 못하는 현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일반대중의 의식도 성장지향형 가치관이나 인간 중심의 윤리관에서 환경과 문명의 조화와 융합을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나아갔다. 위대함과 변영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고속도로에 대해 1968년경 부터 전국에 걸쳐

건설 반대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러한 가치관 전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의 환경에 대한 높아진 의식과 더불어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기 시작한 북미의 환경단체들은 1970년대에 이르러 국가의 환경법 입안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멸종동물 보호법, 국가환경 정책법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재정된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보수적 태도는 오히려 환경운동의 암흑기를 잉태했고, 환경정책에서도 오히려 후퇴를 가져왔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열대림 파괴 등의 범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하여 언론과 대중들이 새로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 그리고 캐나다의 멀로니 수상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리우 세계환경회의 등에 힘입어 북미지역의 환경운동이 다시 꽃피고 있다. 북미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씨에라 클럽(Sierra Club)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환경운동 조직으로, 씨에라 네바다(Sierra Nevada) 지역의 원시적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해 1892년 존 무어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킹즈 캐논과 레드우드 삼림지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으며, 원시림 보전제도를 확립하고 요세미티 계곡과 그랜드 캐논 국립공원을 댐 건설로부터 지키는 등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활약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운동의 폭을 넓혀 환경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열대림 파괴 등 국제적인 환경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활동은 입법, 행정, 선거 등을 통하여 공공정책에 있어 환경문제를 우선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씨에라 클럽은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57개 지부와 370개의 소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60여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북극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야생동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대원을 알리는 캠페인 일환으로 달의 女神이자 사냥의 수호신인 다이애나像에 산소탱크와 마스크를 부착하고 있다.

물의 은신처에 가스과 원유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해안지대에 야생동물 보호구를 설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유타주 등에 있는 사막 보호도 자연을 있는 상태 그대로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운동의 하나로 펼쳐고 있다.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사용, 살림벌채의 저지, 그리고 국제적 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씨에라 클럽의 일년 예산은 200억원 이상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2. Wildernees Societ

회원은 현재 35만명으로 1935년에 세워졌다. 단체의 이름이 의미하듯 주로 야생동식물과 사막, 강, 공원, 숲을 보호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야생생태를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작업, 대중들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연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기계 문명이 자연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환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출규모는 매해 80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수입이 회원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다.

3. National Audubon Society

조류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905년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여성용 모자의 제작을 위한 새의 깃털 사용을 막는 것이 초기의 중요한 활동이었다. 원래는 새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한 모임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예술가이며 조류학자인 존 오두본을 기념하여 오두본 협회로 개칭되었다. 현재 북미 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500개 이상의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며 6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의존한다는 믿음으로 '지구를 위한 옹호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조류학 뿐만 아니라 생태학, 생물학 등 환경관련 학문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희귀종을 보호하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88개를 설정해 두고 생태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류나 야생동물 보호를 여전히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수질, 대기오염, 에너지 정책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해 지출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며 4종의 잡지 발행 등 출판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

4. 지구의 친구들(Friends of Earth)

1971년 세계에서 가장 행동력이 넘치는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씨에라클럽의 사무국장 데이빗 브로워에 의해 창립되어 현재는 세계 33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또한 유엔의 공인 NGO로서 FAO, IMO, ITTO 등의 기구에 참관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사무실은 런던에 있으며, 각국의 기구는 재무, 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국제적 연대의 틀을 단단히 갖추고 연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인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현재 중요한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은 온실효과, 해양보호, 열대우림

보호, 반핵운동 등이다.

5. Green Peace

71년 9월 알래스카의 암치트카 지하 핵실험을 막기 위해 12명의 시위대가 캐나다의 밴쿠버항을 출발한 것으로 시작된 그린피스는 현재 27개국에 160여개 지부 45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남극에도 환경감시 캠프를 설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환경단체이다. 핵폐기물과 독성 폐기물의 해저투기, 고래잡이 등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몸으로 저지하는 활동은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켜 왔으며, 중요한 사업으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남극 보호, 군비축소, 유해쓰레기의 국제 이동 금지 등이 있다.

오랜 역사에 걸맞는 활동을 보여온 그린피스는 대중성과 아울러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 몇년 전 20여개 나라의 남극보호 조약을 주관하기도 했고 또한 구 소련의 방사능 누출 사고나 핵발전소의 기술적 결함을 예리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로비스트를 고용하여 환경관련 법률 제정, 정치적 압력 등을 해나감으로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점잖은 로비 활동에 치중하는 상층부와 온몸으로 저항하는 지역 활동가 사이의 괴리감이 넓어져 가는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